

경기상황을 진단하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각이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경기하강으로 진입'을 공식화한 대비해 한은은 '성장세의 둔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환율정책에서도 두 진영간에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통화정책에 대한 요구수준과 대응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엇갈리고 있다. 그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과 처방에서도 현저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4%중반 성장률, 심각한가=11일 관계당국과 한은 등에 따르면 이성태 한은 총재는 8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올해 성장률이 4.5% 이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경기하강'이라는 표현대신 '경기 상승세의 둔화'라는 용어를 고수했다.

반면 이 총재의 발언이 나온 다음날인 9일 기획재정부는 경제동향 보고서(그린북)에서 "우리 경제가 경기정점을 통과해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경기안정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내세운 표현인 '성장세의 둔화'는 성장을 곡선이 완만해지는 힘이나 아직은 위로 향하고 있다는 해석이며 재정부의 진단인 '경기하강'은 경점을 지나 내리막으로 향한다는 의미다. 재정부가 현재의 경기상황을 좀 더 부정적으로 진단하고 있

정부·韓銀, 엇갈린 경기진단

재정부 "경기정점 지나 하강국면, 경기부양 시급"

韓銀선 "성장률 다소 둔화... 심각한 수준 아니다"

는 셈이다.

이 총재가 잠정적으로 언급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4.5% 이하'에 대한 해석도 두 기관간에 다른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임기내 7% 성장을 목표로 한 만큼 올해 성장률이 5% 아래에 머문다는 것은 재정부로서는 수긍하기 힘들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한은은 "세계 경기와 미국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4.5% 이하 수준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금리인하 무산시킨 네자릿수 환율=한은은 5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나 소비자물가의 급등세와 원·달러 환율폭등에 놀라 금리인하 카드를 접었다.

재정부가 여러 체널을 통해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환율을 네자릿수로 끌어 올린 것에 대해 한은은 "환율 급등이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부채질하는 미망에 어떻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해 간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경상수지 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환율상승이 불가피하며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환율하락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그러나 인위적인 환율상승이 물가상승을 부추겨 내수경기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한은은 우려를 갖고 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정보기술(IT) 업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낮아진 상황에서 환율상승 효과로 이들 업종의 수출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도 일자리 증대효과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을 재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한은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투르기 짙어 없는 금리인하 주문방식=5월 금통위를 앞두고 정부당국자들은 입을 맞춘 듯 금리인하를 강도높게 주문했다. 이미 4월 금통위 직후 이성태 한은 총재가 추후 금리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마당에 정부 당국자들이 빼기를 박으려는 듯이 서투른 것이다.

재정부의 강만수 장관 뿐만 아니라 최종경 차관까지 나서 '금통위 열석발언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금통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금리문제에 관한 한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전광우 금융위원장까지 나서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은에서는 "이쯤되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지경"이라면서 당국자들의 밭언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증에 빠진 정부 쪽에서 환율정책이나 통화정책 등에서 서투르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가 126달러도 넘었다

WTI 장중 126.20달러... 5일 연속 최고가 경신

국제유가가 배럴당 126달러도 넘어서며 5일 연속 거칠없는 최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장중에 전날보다 2.51달러나 오른 배럴당 126.20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WTI는 이로써 1983년 원유 선물거래가 시작된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이날 거래를 전날에 비해 2.27달러 오른 배럴당 125.96달러에 끝내 종가기준 사상 최고치도 함께 깨아치웠다. WTI는 이번

주에 8.3% 급등했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의 6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장중에 3.16달러 오른 배럴당 125.90달러까지 올라 역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유가 상승세는 아프리카 최대의 원유 수출국인 나이지리아의 원유 수출 감소가 미국의 유류 수요가 최고조에 달하는 여름철에 석유 공급을 줄일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공급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 등이 겹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럭셔리 수제화 브랜드 '시라스 캐비넷'이 최근 서울 삼청동 로드숍에서 런칭행사를 가진 가운데 속을 찾은 여성 고객들이 구두를 살펴보고 있다. 가격은 20만원대 후반에서 6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국내 럭셔리 수제화 브랜드 '시라스 캐비넷'이 최근 서울 삼청동 로드숍에서 런칭행사를 가진 가운데 속을 찾은 여성 고객들이 구두를 살펴보고 있다. 가격은 20만원대 후반에서 6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연합뉴스

시장질서 문란 자산운용사 규제 강화

22일부터 회원자격 박탈·임직원 면직 권고 등

자산운용사들이 과도한 실적경쟁 등으로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자산운용협회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등 협회 차원의 자율규제가 이르면 22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자산운용협회는 11일 기존의 자율규제가 강제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사들이 자체제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권을 정지하고 제재대상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율규제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회 공의이사와 회원사 대표이사 등 9명으로 구성되는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나친 실적경쟁 또는

오늘부터 韓·EU FTA 협상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1월말 협상 이후 4개월여 만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공식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1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7차 FTA 협상을 개최한다.

이해민 우리측 수석대표가 지난 9일 "협상터를 위한 프레임(frame·틀)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처럼, 우리 측은 이

번 협상에서 협상타결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쟁점이지만 견해차가 상당히 크고 고위급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상품양허와 자동차 기술표준 등 여섯차례 분과 협상 결과 타협점을 찾기 힘든 분야는 분과협상에서 빼고 상대적으로 이견차가 적은 핵심쟁점인 원산지·서비스,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해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우리금융 회장·행장 분리체제 유지

이번주부터 차기 CEO 인선 착수

광주은행 행주위도 조만간 결성

광주은행 등 우리금융그룹의 차기 최고경영자(CEO)들을 선출하기 위한 작업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히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의 선임작업이 동시에 시작될 예정이어서 회장과 행장 분리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

지주는 이번 주초 이사회를 열어 회

장후보추진위원회(회주위)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회주위는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총 1명과 우리금융 사외이사 3명,

부전문가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한 명이 위원장을 맡아 회주위를 이끌게 된다. 이후 회주위는 공

모 절차를 통해 회장후보를 물색하고 검증 등 인선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회장 공모가 마무리된 이후 행주위

가 결성된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우

리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주위)

도 이번 주중 결성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업무 공백을 감안해 후임자

선정 절차를 법이 허용한 한도 내에

최대한 빨리 진행키로 했기 때문

이다. 광주·경남은행 역시 조만간 행

추위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회장과 행장 분리체제는

모두가 재신임을 받지 못함에 따라 일부부

는 회장, 행장 겸임제로의 복귀 가능

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회장이 은행

이사회 의장을 맡으면서 1기때처럼

심각한 불협화음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보가 현 체제를 유지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회장과 행장이 분리됨에 따라 후보

하미평도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업계

는 시장에서 민간 금융기관들과 경쟁

해야 하는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특

성상 관료 출신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회장 후보로는

내부 출신인 이필승 전 우리주자증권

사장(서울시향 대표)과 민유성 리먼

브리더스 한국대표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애
삼성전자서비스㈜GCA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서 교육상 모집
센트럴관광호텔	호텔서비스 정규직 사원모집(룸서비스)
㈜연수당복분자주	주류생산부서 기계조작 및 단순 생산직
튜닝아이	생산부 도색기술 신입, 경력자 모집
동부회재 광주 고객서비스팀	[광주TM센터]본사직영 제3차 TM사원(텔레마케팅)
청연한의원	운동학과 및 스포츠관련학과 공고모집
(주)창성일렉콤	공무 및 사무실 업무 사원채용
(주)하경테크	자동차 부품 조립 관련 종사자 모집
(주)이오하우스	포스비전 광주 전시장에서 본부장님을 모십니다.
한국인포데이티㈜	광주 스카이리파프 고객센터 채용공고
(주)유원엔지니어링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사원모집
포드자동차주서비스	관리사무원 구함
(주)삼정건설설기계	[광주]건설 기계 장비(굴삭기) 정비사
경동택배	택배회사 배달업무 사원모집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www.jobkorea.co.kr

광주일보

2008.5.12

제18057호

10

광주일보

예금금리 급락에도

6%대 아직 있어요

지금 시중은행에 가면 예금금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은행들이 연초부터 최고 연 7%의 금리를 제시하며 경쟁적으로 내놓았던 고금리 특판예금은 썰물처럼 사라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들이 1년 만기 예금에 대해 5%대 후반을 최고 금리로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6%짜리 상품이 일부 남아 있다. 다만 시중금리의 하락세를 감안하면 아마도 조만간 6%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현재 총 1조2천 500억원 한도에서 최고 6.12%를 주는 'YES 큰기쁨 예금'(이하 1년 만기 기준)을 판매하고 있다. 기본금리는 5.87%로 카드 이용 및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0.25%포인트가 추가된다.

현재 한도가 약 2천500억원 넘은 상태이며 외환은행은 이번 주중에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CD)에 가입하면 최고 6.0%를 지급한다. 통장식CD는 경기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내지 않아 현 정기예금 금리인 5.8%에 0.2%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여우예금'에 대해 기본금리 5.3%에 거래실적 등에 따라 0.8%포인트를 우대해 최고 6.1%를 제시하고 있다. 소액예금을 우대하는 기업은행의 '서민선택통장'도 최고 6.0%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